

中企 26%, 보호무역 조치 경험

사드배치 발표 후 300곳 중 26%가 응답... 시장 다변화 시급

사드 배치 발표 후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중국과 거래할 때 보호무역 조치를 실제로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가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비율은 사드 배치 발표 전 조사 결과(5.3%)보다 20.7%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경험한 보호무역조치의 유형으로는 '가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62.8%)가 가장 많았다.

'제품에 대한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등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

사드배치 후 보호무역을 경험한 기업(78개사) 중 64.1%인 50개사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로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수출액이 평균 4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원인으로 중소기업의 78%는 '미국 견제를 위한 강대국 정치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중국의 내수 증시 등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51.7%), '세계적 저성장구조 및 글로벌 공급 과잉'(8.0%)이라는 답도 나왔다.

중국의 보호 무역조치 지속 예상 기

간은 '향후 2년간'(32.3%), '향후 1년간'(20.0%), '향후 5년간'(19.7%) 순이었다. '정치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6.7%), '사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4.7%)라는 답도 있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 자체 대응 방안으로는 '중국 거래를 축소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하겠다'(32.0%)와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31.0%)는 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정부 간 협의 채널 가동을 통한 무역장벽 해소'(45.7%)를 고른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최근 중국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그 원인을 사드배치 등 정치 및 외교 문제에서 찾는다"며 "정부는 정치 및 외교 문제가 경제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보호무역의 피해를 극복하려면 중소기업들은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재용 기자



국도정보공사, 국가기록관리 대통령 기관 표창

한국국도정보공사가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기록물관리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임직원의 인식개선과 기록관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박명식 사장은 "뜻깊은 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소중한 정보자산인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3.0 정책에 부응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토지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참가해 대한민국 기록 관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공을 인정받았다.

공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임직원의 인식개선과 기록관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박명식 사장은 "뜻깊은 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소중한 정보자산인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3.0 정책에 부응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토지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저염으로 다양한 육제품 제조기술 개발

소시지와 햄 등 다양한 육제품을 저염으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제조기술이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숙명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육제품에 첨가하는 소금 농도에 따라 유해세균 성장 유형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를 활용하면 식중독균인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부패균인 '슈도모나스'의 성장여부를 제품 출하 전에 예측할 수 있다.

최근 저염식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육가공업체에서는 짜지 않은 육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농진청, 유해세균 성장 유형 예측 프로그램화

있다. 농촌진흥청은 소금이 적게 들어갈 경우, 식중독균 성장과 부패균으로 인해 저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육제품 생산을 위해 유해세균 성장유형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유해세균 성장이 식품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소시지 5,400점, 미생물 배지 345,600점을 분석해 유해세균이 자라는 환경과 유형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를 통계학적 수식으로 만들어 프로그램화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염 농도(소금, 아질산이온)와 세균 종류, 육제품 저장기간, 온도를 입력하면 수초 안에 유해세균 성장 유무를 예측할 수 있다.

이로써 저장기간이나 온도를 고려한 적정 소금 농도를 확인해 제품을 만들고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기존 대부분의 미생물 성장예측 모델은 온도와 저장기간 등 환경 조건만을 고려하고 있어 저염 육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것이 어려

웠다.

농촌진흥청은 프로그램 등록을 마쳤으며, 앞으로 육가공업체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관련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한국축산식품학회지', '아시아-호주의 동물과학회지'에 실렸다.

농촌진흥청 오미화 농업연구관은 "이 프로그램을 저염 육제품 생산과 유통기한 설정에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안전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육제품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김완중 익산국토청장 취임... 안전문화 정착 노력 전개

신임 김완중 익산국토관리청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이날 오전 청회 의실에서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대 김완중 청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완중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문화 정착, 변화에 대비한 역량 개발 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익산국토청은 지역을 위

해 존재하는 국가기관만큼 정책추진 과정에서 항상 호남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김 청장은 "안전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호남지역 모든 건설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바이오 지문인증 서비스 시행

전북은행은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인증만으로 스마트폰뱅킹 거래가 가능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27일부터 시행한다.

지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할 때마다 번거롭게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지게 되며, 로그인에서부터 1일 200만원까지 보안카드나 OTP 없이 지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이체가 가능하다.

지문인증 서비스는 본인명의의 지문 인식 기능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폰 또는 아이폰 이용고객이라면 뉴스마트뱅킹에서 최초 한번만 지문정보를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문 외에 홍채, 정맥 등 다양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농협상호금융,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 오늘 출시

농협상호금융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사업 지원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을 28일 전국 농·축협을 통해 출시한다.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은 태양광발전 설치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해 신재생에너지를 널리 보급하고 전기 판매를 통해 농가의 농업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을 통한 대출지원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고자하는 개인사업

자 및 법인이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분담금을 20% 이상 납부한 경우에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장 20년으로 효과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별도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아 추가적인 비용부담도 완화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 공급계약 금액을 감정가로 인정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산출해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